

어떠한 예수 쫓음? 예수 찾음인가?

말씀 시리즈: 마가복음 강해 9

본문: 마가복음 1:32-39

| 서론

마가복음 1장 32-33절의 사건은 안식일이 끝난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난 일이다. 앞서 예수께서는 **안식일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권위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다. 이어 **시몬의 집**에서는 열병으로 앓고 있던 장모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몸소 드러내셨다. 그날 하루는 말씀과 치유, 권위와 공훈이 함께 드러난 매우 밀도 높은 하루였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안식일이라는 시간의 울타리 안에서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해가 질 때까지 지속되었고, 그 시간 동안에는 병자를 데리고 다니거나 치료하는 일조차 율법의 제약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마가가 굳이 “저물어 해 질 때에”라고 기록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한 하루의 끝이 아니라, 율법의 시간이 끝나고 일상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는 경계선에서 일어났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해가 지자, 억눌려 있던 움직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로 몰려왔고,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할 만큼 사람들의 기대와 필요가 집중되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온 이유는 분명했다. 예수를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안고 있던 절박한 문제와 고통 때문이었다. 치유가 필요했고, 회복이 필요했으며,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장면은 단순히 ‘필요를 따라 몰려든 군중’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동기를 따져 묻지 않으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으신다. 필요로 시작된 만남을 거절하지 않으신 것이다. 동시에 주님은 귀신들이 자신을 드러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사람들의 기대가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용히 길을 붙드신다. 이 짧은 장면 안에는 필요를 받아들이시는 공훈과, 사명을 지키시는 분명한 경계가 함께 담겨 있다.

이제 본문은 우리를 더 깊은 질문 앞으로 이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신 예수께서는, **왜 그 가장 성공적인 순간에 홀로 광야로 나아가 기도하셨는가?** 왜 모두가 찾는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말씀하셨는가?** 이 질문은 단지 예수의 사역 방식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어떠한 예수 찾음이 참된 따름으로 이어지는가라는 물음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필요로 시작된 만남이 어떻게 사명으로 이끌어 가는지를 보여준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찾는 우리의 동기와 시야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지를 함께 살피게 될 것이다.

| 본문: 본문 주해1

Mark 1:32 **저물어 해 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Mark 1:33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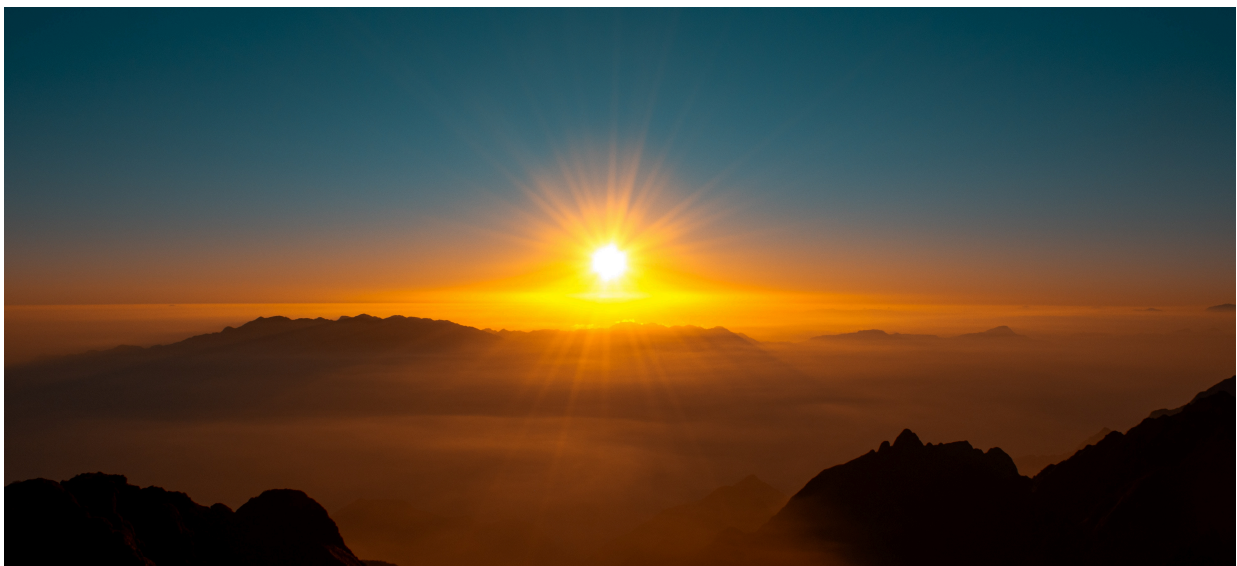
Mark 1:34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1. 저물어 해 질 때에

마가복음 1장 32-33절은 사람들이 “저물어 해 질 때에” 예수께 나아오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표현은 단순히 하루의 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안식일이 끝났음**을 알리는 시간적 표지이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해가 질 때까지 지속되었고, 그 시간 동안에는 노동뿐 아니라 일반적인 병 치료 행위 역시 제한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해가 진 후에야 예수께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나온 것은,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율법 규정 아래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반영한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날 예수께서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다는 사실이다. 주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분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시며, 안식일이 지향하던 참된 안식의 실체이시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안식일 규정이라는 틀 안에 머물러 있었다. 참된 안식이 그들 가운데 와 계셨지만, 그들은 아직 그림자에 매여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 속 그들의 모습은 부정적으로만 읽히지 않는다. 비록 그들이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아왔을지라도, 그들은 주께로 나아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었고, 나아오는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며, 결국 그분이 참된 구원의 주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필요 때문에 주를 찾은 사람들

34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온 이유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처한 절박한 필요 때문이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인해, 또 어떤 이는 자신을 괴롭히는 더러운 영으로 인해 주를 찾았다. 그들의 출발점은 신앙적 고백이 아니라, 고통과 결핍이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접근을 문제로 삼지 않는다. 필요로 인해 주께 나아오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필요는 종종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자리가 되며, 하나님은 그 필요마저 사용하셔서 사람을 당신께로 이끄신다. 본문에서도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동기나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찾아온 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신다.

이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도 맞닿아 있다. 많은 이들이 처음부터 순수한 신앙의 동기로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니다. 삶의 문제나 관계의 필요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로 교회 문턱을 넘는 경우도 있다. 비록 그 시작이 불완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시작조차 사용하셔서 결국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 미약하게 시작된 신앙도 시간이 지나며 자라날 수 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으로써(34절), 사람들의 필요에 먼저 응답하신다. 그들은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지 못했지만, 치유와 회복의 경험 속에서 점차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된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불완전한 동기와 연약한 시작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회복을 통해 성숙으로 이끄신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 역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인내와 긍휼로 대해야 한다. 지금은 미숙해 보일지라도, 주께서 그들을 다듬으시고 세우실 것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공동체의 사명이다.

3.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 메시아닉 시크릿

34절 후반절은 예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지만, 쫓겨난 귀신들이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한다. 여기서 예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귀신들이 예수를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이를 드러내어 말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이러한 고백을 막으셨을까?**

첫째, 예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은 분명한 진리였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예수의 정체는 단순한 명칭이나 선언으로 알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과 길을 통해 점진적으로 드러나야 할 진리였다.

둘째, 귀신들의 고백은 결코 예수를 높이려는 신앙적 고백이 아니었다. 그들은 예수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에 대해 왜곡된 기대를 품게 만들려 했다. 귀신들의 말은 진리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목적은 예수의 구원의 길과 고난의 사역을 흐리게 하는 데 있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군사적 승리를 가져오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 억눌린 현실 속에서, 그들은 강력하고 승리하는 메시아상을 갈망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드러내신 메시아의 모습은 달랐다. 예수는 정복자가 아니라 섬기는 메시아,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는 메시아로 오셨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부른 고백과 잘못된 이해는 예수의 사역을 왜곡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귀신들의 입을 막으시고 침묵을 명령하신다. 이 침묵은 진리를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바르게 드러나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른바 ‘메시아닉 시크릿’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는다. 첫째, 예수의 참된 정체와 사역은 서두름이 아니라 따름과 배움의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겉으로 드러나는 고백이나 종교적 표현만으로 예수의 뜻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곡된 이해는 신앙의 방향을 흐릴 수 있다. 셋째, 공동체는 서로가 예수의 참된 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인내와 지혜로 함께 걸어가도록 돕는 책임을 지닌다.

§ 나는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만날 때, 판단하거나 서두르기보다 그들을 인내로 바라보고 품고 있는가?

필요와 문제로 주를 찾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는 그들을 어떻게 환영하고 섬기고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감싸며, 믿음이 자라도록 돕기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나는 예수님을 단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걸으신 메시아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 주변의 신앙인들이 주님의 참된 길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나는 어떤 말과 태도로 돕고 있는가?

| 본문: 본문 주해2

Mark 1:35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Mark 1:36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Mark 1:37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1. 한적한 곳 - 새벽 광야에서 드리는 기도

35절은 예수께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한다. 여기서 ‘**한적한 곳**’은 **광야**를 가리키며, 이는 마가복음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리**를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과 소음에서 벗어나, 아버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시간을 가지셨다.

이 기도의 시간은 단순한 경건의 행위가 아니라, 사역의 본질과 방향을 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자리였다. 앞선 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는 급격히 높아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자칫 예수의 사역이 사람들의 환호와 요구에 의해 규정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홀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신 것이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광야에서의 기도를 통해 사단의 미혹과 세상의 기대로부터 중심을 지키시고, 자신의 사명을 다시 아버지 앞에서 확인하셨다. **주님조차 이렇게 기도로 사역의 중심을 지키셨다면**, 오늘 우리 역시 기도를 통해 삶과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도는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처음 받은 부르심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힘의 근원이다.

2. 시몬과 사람들의 쫓음

36-37절에서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 나선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고 말한다. 이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시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요청이었다. 사람들은 다시 예수께서 자신들 가운데 머물며, 기적과 치유를 계속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했다. 시몬의 시야는 여전히 사람들의 환호와 자신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 전날 자신의 집에서 경험한 치유와 축귀의 사건은 그에게도 큰 흥분과 기대를 안겨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시야는 달랐다. 예수는 사람들의 요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다. 한적한 광야와 분주한 마을, 기도의 자리와 사람들의 요구는 분명히 대비된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한다. 오늘날 **우리의 예수 쫓음과 찾음은 어떠한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기대와 필요에 맞게 예수의 길을 조정하려 하고 있는가?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신앙을 유지했음에도 여전히 처음의 필요에 머문 채 시야를 아버지께로 돌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지점이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심으로 사단의 미혹과 세상의 기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셨다.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같은 자세를 배워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는 예수 쫓음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편익과 기대에 맞춰 주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신앙의 연수와 경험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처음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로 중심을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주님처럼 홀로 기도하며 마음을 재정비하는 습관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처음 결심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비결이다.

§ 나는 신앙생활 중 흔들리거나 미혹될 때, 어떻게 중심을 지키고 있는가?

나의 예수 쫓음과 찾음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홀로 기도하며 마음을 재정비할 때, 그것이 주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는 길임을 나는 믿고 있는가?



| 본론: 본문 주해3

Mark 1:38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Mark 1:39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1.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 시야를 돌리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시야를 사람에게서 아버지께로 돌리길 원하신다. 사람들의 환대와 영광의 현장이 아닌, 사명의 자리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하신다. 시몬의 요구에도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셨다.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기적과 사람들의 환호 속에 머무르지 않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초대하신 것이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단순한 이동의 제안이 아니라, 예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사역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주님의 결정은 사람들의 기대나 반응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근거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가 가장 클 때에도, 주님은 시야를 돌려 다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신다. 이 장면은 예수의 사역이 인기나 성공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주님의 걸음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향해 있었고, 그 뜻이 이끄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2.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 사명과 초심을 지키는 삶

예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하신 선언은, 자신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신 말씀이다. 이는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기도를 통해 다시 확인된 사명의 고백이었다. 주님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잊지 않으셨고, 그 목적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으셨다. 이 고백은 예수 개인의 결단을 넘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방향성까지 함께 제시한다. 사명이란 상황에 따라 조정되거나 타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야 할 부르심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요구가 아무리 크고, 머물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일지라도, 사명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본문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비추기 시작한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주를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초심은 지금도 살아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주의 사명자로 부름받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종종 세상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가 앞에서 시야가 흔들린다. 그래서 잠시의 편안함과 눈앞의 이익에 마음을 두고, 부르심과 사명을 뒤로 미루기 쉽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단지 나 혼자 편안하고 배부르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개인적인 소망과 작은 이익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는 둔감해질 때가 많다. 본문 속 시몬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

3.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 사명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본

마가복음 1장 39절은 예수께서 말씀으로만 사명을 선언하신 분이 아님을 보여준다. 주님은 실제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이는 사명이 특정 장소나 성공의 현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확장되고 움직이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주님의 사역은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이 모습은 교회와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교회는 사람을 붙잡아 두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공동체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의 공동체와 삶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주님의 걸음을 따르는 공동체로 서 있는가, 아니면 머무는 데 익숙해진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한다. 교회는 사람의 열망을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예수의 열심이 구현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기도로 중심을 잃지 않고 사명자로 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며 사람들의 심령이 주께로 돌이키게 될 것이다.

§ 나는 나의 시야와 마음을 사람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아버지께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선택과 결정에서 편안함과 작은 이익보다, 주의 사명과 복음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의 사명과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는가?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 결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예수 쫓음이 참된 예수 찾음인가?”라는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된다. 사람들은 각자의 필요와 절박함을 안고 예수께 나아왔고, 주님은 그 동기의 불안전함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긍휼과 권위로 치유와 회복을 베푸셨다. 필요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은 결코 필요에 머물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만남을 통해 점차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길을 드러내셨다.

동시에 주님은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 속에서도 홀로 광야로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점검하셨다. 이는 예수의 사역이 사람들의 요구나 성공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주님의 걸음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향해 있었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자리에서도 머무르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고 말씀하신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는 선언은, 예수의 사역이 치유와 기적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선포라는 **사명에 뿌리내리고 있음**을 밝히는 고백이다.

이 본문은 우리의 신앙 여정을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이 된다. 우리는 필요로 주를 찾는 자리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에 머물도록 부름받지는 않았다. 신앙의 성숙은 내 필요가 채워지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향해 시야가 옮겨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에 시선을 두는 신앙은 쉽게 흔들리지만, 기도를 통해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할 때 비로소 중심을 지킬 수 있다.

결국 참된 예수 찾음이란, 내 삶의 요구에 예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위에 내 삶을 올려놓는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필요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머무름에서 보냄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걸음을 보여준다. 이 길은 화려하지 않지만 분명한 길이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참된 제자로 빚어져 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다.

| Quiz

1. 마가복음 1장 32-33절에서 사람들이 “저물어 해 질 때에” 예수께 나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2. 사람들이 예수께 나아온 주된 동기로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① 예수의 메시아적 정체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② 율법을 완전히 이해한 순종의 태도
③ 각자가 처한 고통과 절박한 필요 ④ 제자들의 권유와 설득
3. 예수께서 귀신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를 가리키는 마가복음의 특징적인 주제는 무엇이라 불리는가?
4.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가장 바쁜 순간에도, 홀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셨다. 이 장면을 통해 볼 때,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예수께서 반드시 붙드셨던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다니며 전도하신 모습이 오늘날 ‘교회와 제자도의 본질’에 대해 주는 교훈은?